1998. 6. 15 창간

춘천성시

Vol. 216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2016
12

특집 춘천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
성시화 춘천 교계의 2017년 신임 회장단
선교 변화하는 대학, 캠퍼스 선교의 길을 묻다
다음세대 학교 내에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기관탐방 강원CBS소년소녀 합창단
가정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016

한섬성탄 축하예배

Re-Discovery Christmas



한섬청소년 앙상블

12월4일 주일 10:30 Vn.김규리, 고다희, 지은혜 Vc 김수진, Fl. 고현정, Pf. 장근영



바이올리스트 이수미

피아노 김나연

12월11일 주일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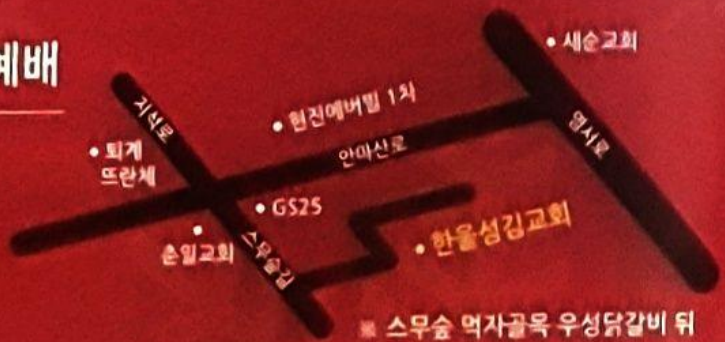


소프라노 김민정

피아노 신승원

12월18일 주일 10:30

12월25일 주일 10:30 성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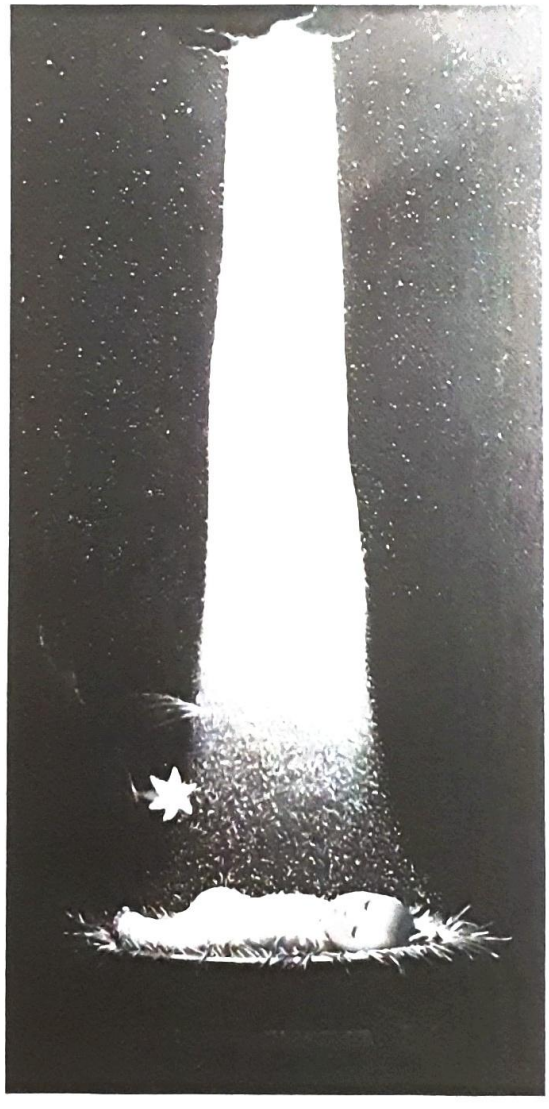


※ 스무숲 먹자골목 우성닭갈비 뒤

한울섬김교회

춘천시 석사동 907-3 033) 261-0695

Cover Story



임마누엘

눈 오는 골목길을 누비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전하는 성탄절 문화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새벽송을 돌던 그 시대의 추억들이 이 땅.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전태영 작가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 및 심사위원
한국미술인선교회 임원
'숨은 십자가' 순회전 24회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박인관, 본부장 박성철, 사무총장 조영춘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12
Vol. 216







커버스토리		01
Editor's Note		03
12월 캘린더		04
사설	이단에 대한 경고	06
특집	춘천 국제평화NGO컨퍼런스	08
예향/만평		11
성시화	춘천 교계의 2017년 신임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12
선교	변화하는 대학, 캠퍼스 선교의 길을 묻다	14
쉼한편	죄	17
통일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9차 춘천모임	18
다음세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20
예수안에서 본 예술	구원 6	23
기획	춘천 성탄트리 문화축제를 꿈꾸며	24
가정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사암교회 이지현 집사가정)	27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32
기관탐방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38
영화이야기	영메시아	42
건강이야기	암 예방 컬러푸드	44
음악이야기	W.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46
설교	미쁘신 하나님	48
세계성시화운동본부		51
11월을 돌아보며		52
알려드려요		54
후원자명단		56

Editor's Note

시간과 성경 본문을 맞춘 것처럼, 지난 달 중순에,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참 시끄럽게 시작되던 때부터 묵상 집에 나오는 성경본문의 순서가 아모스서였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극심한 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탐욕으로 가득 차 서민들을 착취하기에 교활하였던 당시 부자들은 이 시대에서 여전히 있으며, 의로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은 이 시대에도 여전한 것 같다.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방식을 빗나가 버린 이스라엘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말씀하신다. 다림줄에서 빗나가 기울어진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야 다시 쌓을 수 있다. 기울어진 벽을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받치고 싸매 보았자 언젠가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요즘은 온통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모든 뉴스와 이슈를 다 삼켜버린 것 같다.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흥분은 잘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책을 찾는 데는 미흡하다. 그러니 정치꾼들도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정치에 능하다. 이번 사태에 잘못을 찾고 물어서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교회가 관심 갖고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 어느 순간엔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들은 기독교인들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과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자 요한처럼, 아픔과 상한 감정으로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도록 앞서 가며 길을 닦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5:24).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린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편집장 최영조

춘천 행사 달력

2016 12

LORD'S DAY | MONDAY | TUESDAY

이달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달의 기도제목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정의.자유.평등의 법질서가 서고 자유민주법치한국이 되게 하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여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시고 동성애 등 음란, 퇴폐, 사탄숭배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화가 꽃피우게 하소서.

4
- 성탄트리 점등식
  오후4시 공지천 잔디밭
  춘천기독교연합회

5
-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연합종강예배
  저녁7시

6
- IVF XLGM(연합예배)
  (문화소통_공간나눔)
- 화요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저녁7시, 동부교회

11
- 성탄작은음악회
  춘천역 명동 공지천

12
-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주년 12시간 기도회
  오전10시~오후10시
  주향교회

13
- 화요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저녁7시, 동부교회

18
- 성탄작은음악회
  춘천역 명동 공지천

19
- IVF 강원간사 사역협의회
  원준IVF회관

20
- 화요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저녁7시, 동부교회

25
- 성탄절
- 성탄작은음악회
  춘천역 명동 공지천

26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 IVF ~31,겨울신앙훈련
  BLESS CAMP, 춘천IVF회관
- JDM ~30 춘천지구 겨울집회
  경기도 가평
- CCC ~30 금식수련회
  한국CCC본부

27
- 화요통일기도모임
  오후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저녁7시, 동부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JDM 한국간사회 고최원국간사추도예식 JDM훈련센터, 삼청동묘지 • CCC 졸업생 파송채플	**2** • IVF 연합리더모임 춘천IVF회관 • CCC ~3일 졸업생 리트릿	**3** • JDM 제26기 한국제자훈련원 졸업예식 및 수습간사임직예식 JDM훈련센터 • 춘천에벤에셀청소년집회 오후2시, 주향교회
7 • 춘천성시 편집회의 오후2시	**8** • JDM 춘천지구 종강채플 춘천지구 비전센터	**9** • 성탄파티전도법 오전11시, 주향교회	**10**
14	**15**	**16**	**17** • 춘천교계 각 기관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오후2시, 신성감리교회
21	**22**	**23** • 군선교연합회 사랑의 온차 오전11시, 신성감리교회	**24** • 크리스마스 이브
28	**29**	**30**	**31**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이 단 에

11월14일 국민일보 기사 "'그들은 이단인데' 세월호에 최순실까지 엉뚱 뭇매"를 보면 의미있는 발언들이 있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들로 2014년 세월호 사태와 최근의 '최태민 · 최순실 사태'가 기독교 연관설로 와전되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박혜랑(성균관대 박사과정) · 황수진(성균관대 석사과정)씨는 지난 12일 성균관대에서 '신문기사와 트위터에 나타난 언론 ·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독교'라는 키워드로 최근 3년(2013~2015)치 기독교 관련 인터넷 기사 및 트위터 댓글을 수집 · 분석하면서 기독교관련 트위터 댓글이 총 17만4886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으로는 2014년 6월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친일 발언'(댓글 3459건)이었고, '차별금지법 및 종교인 납세' '시국선언 · 기도회' '세월호 · 구원파' 등 정치 분야 언급이 50.9%로 절반을 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전주기독교연합회' '교황' '목사 망언'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 · 구원파 · 유병언 등의 명칭이 언급되면서 따라붙는 '기독교' '신도' '교회' 등의 단어는 정통 기독교 및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번 박대통령과 최순실 사건만 해도 우리민족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철저하게 이단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태민은 불교의 승려와 천주교를 걸쳐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며 6명 이상의 부인과 7번의 바뀌어진 이름에 '태자마마' '원자경' '칙사'로 불려지던 한국의 대표적 피갈음의 대부 김백문에 의해 만들어진 통

대 한 경 고

글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아름선교회)

일교 박태선의 천부교와 맥을 같이하는 이단의 교주이다. 그에게 적어도 마음이 종속되었던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 최순실에 의해 만들어진 엄청난 국정유린이 이번 사건의 실상이라 할 것이다.

세월호에 의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문제도 정통 기독교에선 결코 용인 될 수 없었던 권신찬 유병언의 이단 구원파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모든 이단들이 가지는 공통적 주요 특징들이 있다.
첫째는 사회적 소통의 부재이다.
둘째는 자기우월의식에 의한 교만의 안하무인적 태도이다.
세번째는 독선적 고집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정죄의식이다. 자기교회 또는 자기 교주외에는 길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닫힌 의식이다.
다섯번째 자기 교주나 공동체에게 철저한 종속적 관계로 부모도 스승도 부정하고 오직 한곳에 묶여버리는 외골수적 성향이다. 이런 사회적 소통의 결여가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뿐만이 아닌 사회 모든 공동체의 심각한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전반의 총체적 난국도 이런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젠 단순히 기독교에서 만의 국소적 문제를 주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이 아닌 일반 사회적 공동체안에서도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단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에 대한 분명한 홍보와 바른 영적 가르침으로 건강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적 리더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역할 또는 성시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밝은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때라고 본다.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춘천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

지난 11월 5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제평화NGO컨퍼런스가 열렸다. 「평화한국」과 영국의 RTN((Relational Thinking Network)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사암정악용평화마을,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허문영 박사(평화한국대표)와 송용남 박사(강원대 명예교수, 사암정악용평화마을 명예촌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운찬 박사(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연구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동반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가치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무한히 허용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동반성장」이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 힘을 합쳐 이를 크게 키우면서 키워진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성장」은 단지 경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

고,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결상황에서 이득을 보려는 하는 세력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남북한 「동반성장」,「동반평화」의 꿈을 꾸어야 한다.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북제재였다. 물론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안보와 세계 평화에 커다란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 폐지와 군비축소를 추진하되, 이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은 대화이고, 그 수단도 대화이다. 대화와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한다고 정 박사는 제안한다.

평화통일의 프로세스

영국의 저명한 평화교섭단체인 RTN((Relational Thinking Network)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슐루터 박사(창립자)는 "평화의 프로세스"를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교섭을 주도하고, 르완다, 수단,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교섭을 진행한 경험을 진솔하게 그 사례로서 이야기하였다. 또한 세계평화의 큰 축인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첫째, 정부 및 주요 인사들의 신뢰를 받되 정치적인 선동가들이 아닌 사람들로 교섭단을 구성한다. 교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난제를 풀기위한 기본바탕의 신뢰를 형성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 둘째는 눈에 띄지 않는 중간 수준의 진행이 필요하다. 공유되는 원칙과 체계적인 지속성이 요구된다. 주요 인사들과 교감한다. 관계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내 속에서 접촉한다. 셋째는 그 이후 고위급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 높은 수준의 평화촉진과 평화정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과거에 대한 서로간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반도평화의 걸림돌, 북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인 박종수 박사(진 주 러시아공사)는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청중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였다. 첫째, 2차대전 말 일본 본토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빨치산 대장 김일성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기껏 두 방의 핵무기에 천황이 무릎 꿇었다는 신예무기에 대한 호기심은 북한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핵개발을 착수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 둘째, 한국전쟁의 교훈이다. 김일성은 개전초기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자 언제든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소련역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주둔 미군을 향해 한반도에 12개 정도의 핵폭탄 투하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셋째, 1962년 쿠바 사태 때 소련이 취한 미온적인 입장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위기 도래시 소련이 핵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넷째, 남한이 1970년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압력과 회유로 핵개발 계획을 접었지만, 그 대신 미국은 비밀리에 핵폭탄을 한국에 배치했다. 다섯째로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지목이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비핵국 지도자의 말로를 두려움으로 목격했다. 이것이 북한의 70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핵폭탄을 갖겠다는 집념으로 바뀌었다. 특히 소련 붕괴 후 김정일은 정신적 원자탄인 주체사상과 물질적 원자탄인 핵폭탄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평화의 발걸음

전병길 박사(통일과 나눔 사무국장)는 실제적인 제안으로 남북평화 통일기금 조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윤기 교수(한림성심대학교, HTN대표)는 차세대인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현재용 대표(강원도 양돈협회장 역임, 춘천농장대표)는 농업과 축산분야에서의 남북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엄기승 박사(기후변화대응센터)는 남북한 공동 기후연구를 제안하였고, 통역으로 섬겼다. 이영길 박사(우간다 쿠미대학교, 총장)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화도시, 제2의 제네바의 꿈을 꾸어온 춘천에서 통일 기획 패널이 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렇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샬롬(평화)가 없는 역사였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단, 10년도 전쟁과 가난, 질병과 재난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 인간 역사는 한 마디로 샬롬 부재의 역사이다. 이러한 샬롬 없는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샬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샬롬의 왕"이라고 선포한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샬롬이 멀게 느껴지는가? 단연코 우리들의 문제이다. 샬롬을 위해 훈련되고 성숙한 개인, 가정, 지역, 국가는 서로 돌보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감동이 있는 사회를 창출하고 언제나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다.

작은 불씨들이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듯이 평화는 연결과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도시 춘천은 지난 1972년 여름, 전국 최초의 성시화 운동이 일어난 이래 '거룩한 도시, 모델도시의 꿈'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 기도하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얻듯,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자.



글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예향

마지막 한 가지 소원

태평양을 건너가던 유람선이 파도에 휩쓸려서 3명만이 겨우 살아남아 무인도에 도착했다. 한 사람은 미국인 부자, 또 한 사람은 프랑스인 바람둥이, 또 한사람은 FBI에게 쫓기는 마피아 깡패두목이었다. 3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해변에서 요술 램프하나를 주웠다. 한 사람이 뚜껑을 여니까 펑하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주인님들,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인 부자가 "알프스에 있는 내 별장에 데려다 줘"하고 말하자마자 부자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프랑스 바람둥이가 "파리에 있는 내 애인 곁으로 보내줘"하니까 그 말과 함께 사라졌다. 마지막에 남은 마피아 깡패두목은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 수배중이라 어차피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심심하니까 아까 걔네들 다시 불러줘"

요즘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히2:1,3)

글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만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글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춘천 교계의 2017년 신임 회장단

취재/사진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춘천기독교연합회
2017년 회장 박상칠 목사 (신성감리교회)

2016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차덕수 목사)의 제21차 정기총회가 10월 19일(수) 오전11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가 선출되었고,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선출해야 하나 교단 사정으로 인해 차후 추천하기로 하였고, 그 외 임원은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춘천목회자연합회
2017년 회장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2016년 춘천목회자연합회(회장 박찬욱 목사)의 정기총회가 10월 19일(수) 오전10시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손학균 목사(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고, 수석부회장에는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가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은 역대 회장단 모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7년 이사장 박인관 목사 (광염교회)

201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김창환 목사)의 정기총회가 11월 16일(수) 오후1시에 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박인관 목사(광염교회)가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조영춘 목사(한아름선교회)가 선출되었으며, 그 외 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춘천장로연합회
2017년 회장 남준섭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2016년 춘천장로연합회(회장 강철주 장로)의 정기총회가 10월 29일(토) 오후3시 창대교회(이성신 목사)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선출되었고, 수석부회장에는 김정호 장로(제일장로교회), 총무에는 김인수 장로(중앙성결교회)가 선출되었으며 그 외 임원은 회장단 모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춘천홀리클럽
2017년 회장 김종열 장로 (신성감리교회)



2016년 춘천홀리클럽(회장 황병호 장로)의 제20회 정기 총회가 11월 26일(토) 오후5시에 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김종열 장로(신성감리교회)가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에는 김철수 장로(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은 회장단 모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마쳤다.



춘천경찰서교경협의회
2017년 회장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2016년 춘천경찰서교경협의회(회장 박재영목사) 정기총회가 11월 16일(수요일)에 춘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2017년 신임 임원에는, 회장에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부회장에 김원중 목사(우리교회),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총무에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 서기에 강한돌 목사(광판교회), 회계에 윤정호 목사(생명샘순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춘천교계의 각 기관은 전체 임원선출을 마친 후, 12월 17일(토) 오후2시에 신성감리교회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2017년 1월 10일(화)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열리는 신년교례회(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를 통해 신임 회장단의 발표와 인사의 시간을 갖게 된다.



춘천지역 대학 선교단체 연합간사 모임 이야기

변화하는 대학, 캠퍼스 선교의 길을 묻는다

글 권정희 간사 (IVF)

매년마다 춘천지역 대학 선교단체 간사들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 11월에는 교제를 넘 어 "변화하는 대학, 캠퍼스 선교의 길을 묻는다" 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대학사회속에서 함께 길을 찾는 자리가 마련 되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은 수능 시험일이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각자의 생존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 린 대학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제 곧 수능을 치르고 치열한 대학사회로 진입하게 될 학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 특별히 춘천지역 대학이라는 상황속에서 함께 질문하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모임은 3명의 발제자가 20분씩 발표, 테이블 토론, 전체 질의응답, 식사교제 시간으로 구성되 었다. 대학교수,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총무, 선교단체 대표간사가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학 현장과 앞으로의 그림을 이야기 해주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첫번째 발제는 "한국 사회 변화와 대학의 구조조정" 이선우 교수(한림대 기획처장)의 이야기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교 졸업자수가 2013년 63만명에서 10년뒤인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졸업 자수는 2011년 65만명을 정점으로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인 56만명이 하로 감소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40만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 머지 않은 5년내에 곧 대학에서 펼쳐지게 될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계획하여 대학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 원 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1주기 평가 결과로 (2015.08.31) 강원권 학교는 한림대 A등급, 강원대 D등급(신승호 총장 사퇴, 2016년 제한해제), 한중대 2년 연속 E등급으로 전면 제한그룹, 강원도립대(전문) 는 한중대와 동일 제한 대학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 라 최악에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학평가에서 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은 중요한 기준이다.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발제는 "변화하는 대학, 캠퍼스 선교 4.0" 장근성 목사(학복협 상임총무)의 이야기다. 만약 산에 큰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가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캠퍼스와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선교단체들은 각자의 양동이를 들고 개별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나섰던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불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끄기에는 역부족인 불처럼 보인다. 각 선교단체가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캠퍼 스 선교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사회에는 기독교수회, 교직원선교회, 선교단 체, 지역교회 등 캠퍼스 선교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익숙한 방식의 이전 패러다임을 넘 어 변화하는 캠퍼스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대학과 복음의 증언" 김성한 간사(춘천 IVF 대표간사)의 이야기이다. 캠퍼스 간사들은 청년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자신들이 경험했던 대학의 현장과 지금의 현장은 많이 달라져 있 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와 문화의 열매들인 오늘날의 청년들 을 더 알아가고 대학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는 "post" 이다. 우리는 지금 post-modern, post-colonial, post-Cristendom의 시대를 통과해서 새로운 미래로 진입해가고 있다. 시대가 달 라진 만큼 오늘날의 질문은 70년대의 질문과 같지 않다. 캠퍼스 사역은 이 변화하는 시대의 질문들이 먼저 등장하 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현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첩첩산중의 위기이며, 위험한 전쟁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선교의 현장인가? 대답에 따라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날 문화소통—공간나눔에서 5개의 선교단체, 19명의 간사들이 함께 모였다. 3번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테이 블에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나누었으며 여러 질문들과 대답이 오고 갔다. 현재 대학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 게 될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의 오만함을 버리고 변화하는 대학과 학생들의 이야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의 이야기,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커다란 이야기에 경청하며 참여할 때 어두워 보이는 대학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리라 소망한다.

죄

김용택

우루루 쾅쾅
천둥 번개 친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두리라
내가 내 죄를 알았다.

내가 둘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에스겔 37:15-17
에베소서 2:14-18

분단 반세기가 넘은 한반도에 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강사
윤재선 목사
(산천무지개교회,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59차 춘천 모임(11월14일, 주향교회)에서 있었던 강의를 정리합니다.

역사는 분열과 대립 속에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이 죽은 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열되었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신약시대에도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웠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같이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 생각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대립 속에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다. 역사는 분열과 대립 속에 있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해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무릎을 맞대는 공간이 생겼는데, 바로 교회 공간이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2:14,16)라고 하셨다. 본문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해주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날은?

불행하게도 대립과 갈등 분열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북한은 핵무장이 가시화 되었고, 남한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이민자를 출국시켜야 자국일자리가 생기니까 최소 300만 이민자를 축출시키겠다고 했다. 일본 아베정권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지고, 영국도 자국보호중심의 무역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국보호주의이다. 군대를 가지면서 평화라고 한다. 서로 평화를 이룬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국중심의 역사관으로 대립과 충돌 속에서 21세기 전반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샬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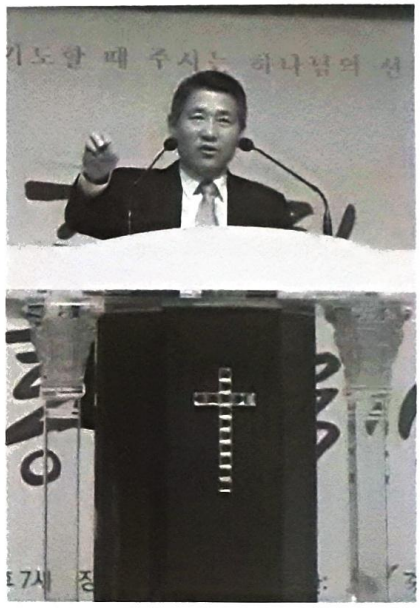
자국중심으로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는 라틴어로 '팍스'이다. 영어로 'PEACE'도 '팍스'에서 나온 것이다. 승리로 상대를 다 쓸어버리는 힘의 논리를 '팍스'라고 한다. 세상적인 방법이다.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다. 뿌리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면 서로 형제 자매라 고백하는 삶에서 샬롬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샬롬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팍스인가? 샬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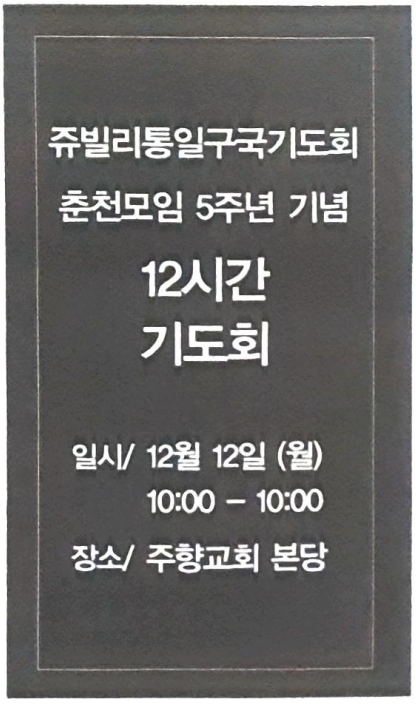
한반도에는 역사적으로 931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항상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한반도가 약해서 그렇다. 독일도 이태리도 반도국이나 강했기에 중심이 되었다. 우리민족은 선비정신이 있어서 전쟁을 싫어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었다. 전쟁은 공멸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평화가 좌우되는 중요한 곳이 되었다.

강력한 무기인 사랑의 미사일 기도의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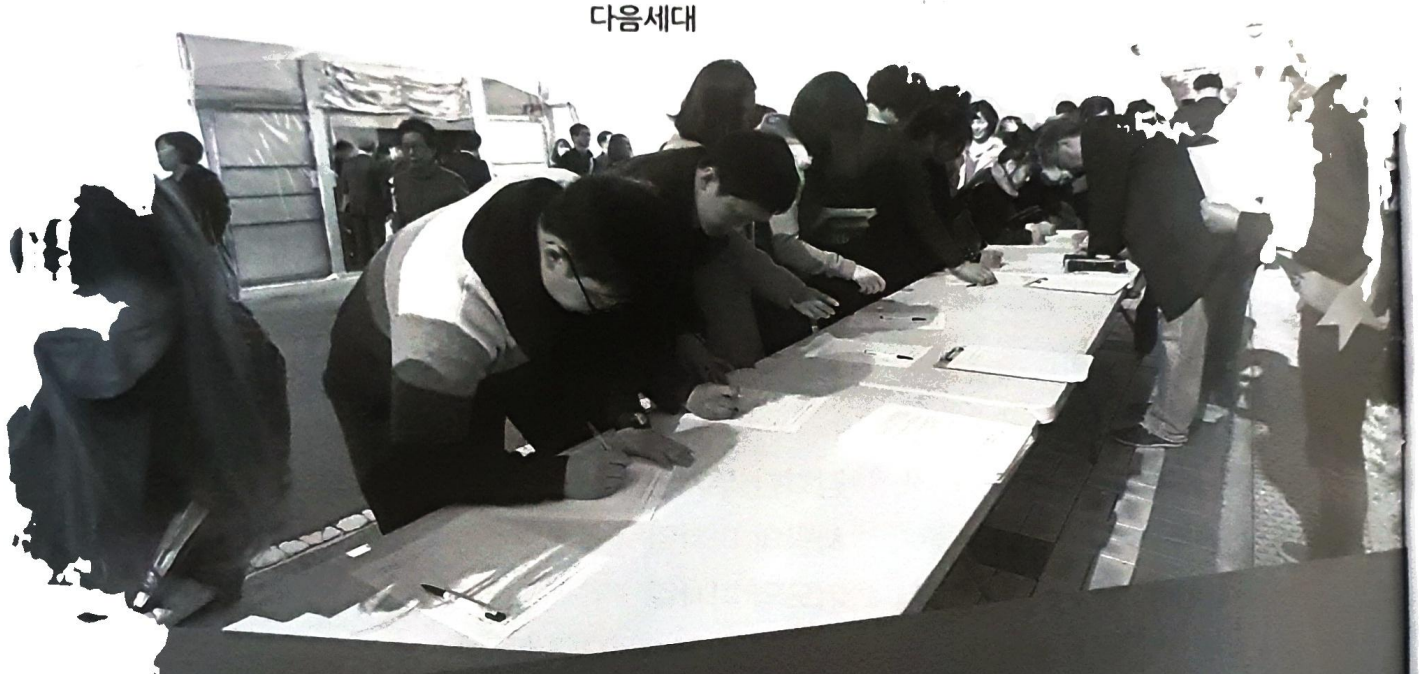
아가페의 사랑만이 전쟁을 쉬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 로마제국을 활용하지 않으셨다. 중동의 이스라엘을 활용하셨다. 그 주인공이 징기스칸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힘없는 예수님이다.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심처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강력한 무기를 생산해내는 춘천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Made in God, Made in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기도의 미사일, 사랑의 미사일을 북한 전 지역을 위해 발사하는 기도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 윤재선목사



글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God's Not Dead 2)'는 현재 미국 학교 안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그레이스'가 오빠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여고생 '브룩'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성경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브룩'이 역사교재 속 위인에 예수님이 빠진 것에 의구심이 생겨 수업시간 '그레이스'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대답을 한 '그레이스'. 하지만 그 답으로 인해 그녀는 실직은 물론 엄청난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내용이다. 영화 끝부분 '그레이스'의 변호사가 '신앙의 자유는 갖되 학교 안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의 자유냐!' 며 항변하던 소리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8

일 연합뉴스, YTN,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다수의 매체에서 '초등학생, 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한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기독교봉사동아리를 올해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에 그 이유를 문의했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며, 종교중립적 입장에서 종교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불허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국 학교 내에 교육부가 인정하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 YMCA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학부모 측은 종교 동아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자선교회에 따르면, 교육부 정보공시 안내자료, 교육청의 답변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종교동아리 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이미 수차례 확인 받았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이후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로 부터 "기독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는 본 회의 순수한 선교활동을 위해 도움을 바란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의 판결결과가 춘천지역 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에 춘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 신성감리교회 담임목사)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서석근 강릉 반석감리교회 담임목사)가 발 벗고 나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고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서명 운동 결과 총 20개 교회, 4375명이 탄원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짧은 기간 이루어진 탄원서 서명운동은 춘천시 교회들의 연합과 응집된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탄원서와 서명지는 25일 재판부에 제출되어 춘천 지역교회들의 진중한 목소리로 전달되었고 재판 결과에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춘천 지역교회들의 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국교육자선교회 소속 기독교사들은 22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상경 목사가 "학교 내에서 종교자율동아리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하는 기독교사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교육자선교회의 입장을 낭독하였고,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교육감의 중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현직교사가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CTS 뉴스[1, 2], 뉴스타켓[3], 시사타임즈[4]에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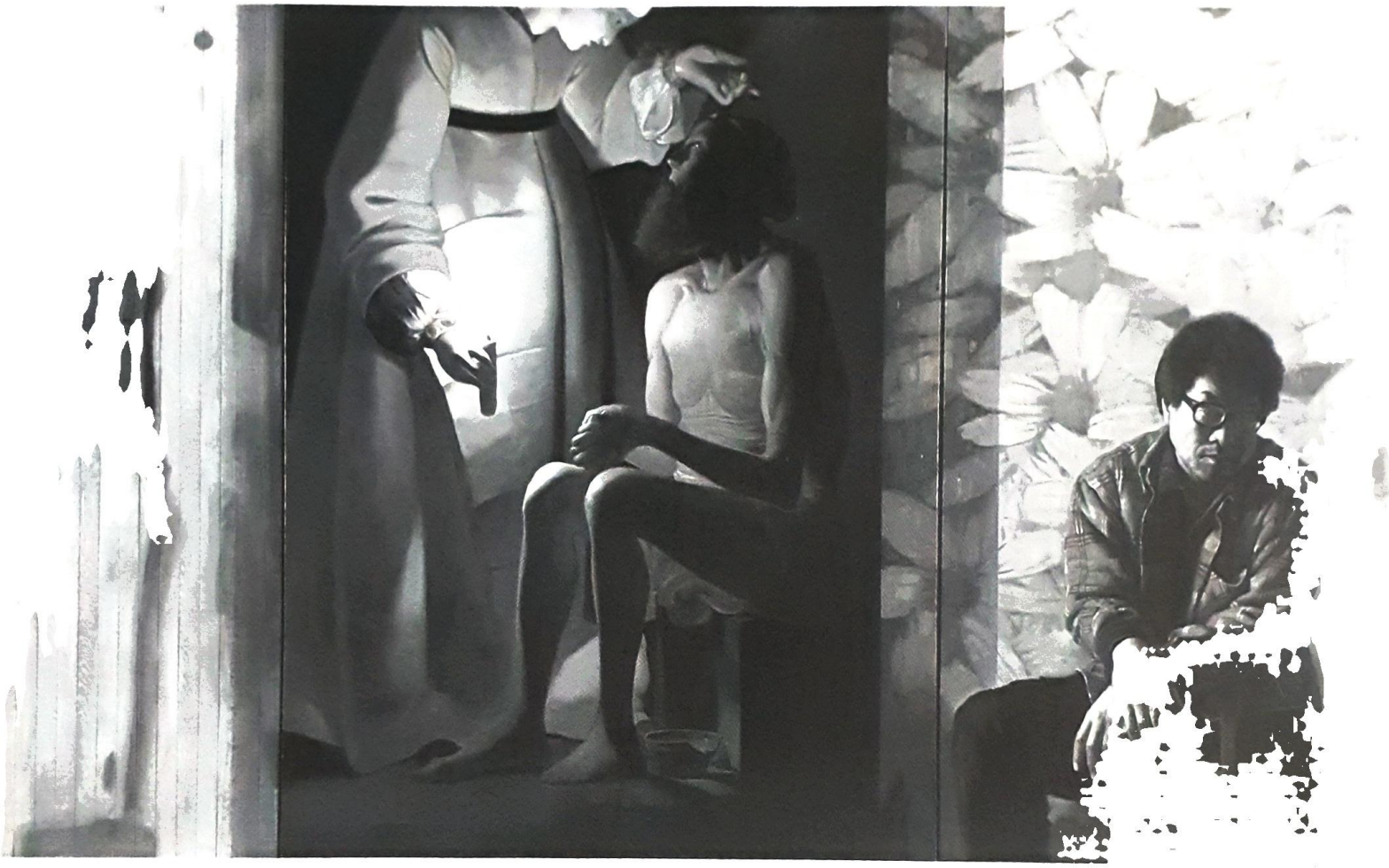
우리나라 10~20대의 교회 출석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존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려는 기독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회마다 기독학생자율동아리와 지도교사를 위한 〈학부모 연합 기도모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재판은 12월 16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학교 전체에 기독교 동아리가 종교라는 이유로 금지될 수도, 또는 자유롭게 꽃 피울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신앙을 표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춘천 지역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신은 죽지 않았다 3(God's Not Dead 3) 영화의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춘천에서 다시 쓰실 줄 확신한다.

1 CTS 뉴스 보도 1(행정소송 건 https://youtu.be/wpR2EFSzcnQ)
2 CTS 뉴스 보도 2(학교내 종교동아리 가능 건 https://youtu.be/nH-w5B0g5ZY)
3 뉴스타켓 뉴스 보도(http://m.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7459)
4 시사타임즈 뉴스 보도 (http://timesisa.com/news/view.html? section=93&category=96&no=15759)

글 서원혁 교사(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서기, 홍천 남산초)



구원 6

김복동
Salvation 2014-6
290.9×193.7cm
oil on canvas & wood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과 고난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친구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 주권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오른쪽 인물은 눈과 다리의 장애를 갖고도 크게 화업을 이뤄낸 존경하는 선배화가의 삶을 투영시켜 보았다. 그는 군복무 중 폭발물 사고로 한쪽 눈과 한쪽 다리를 잃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런 힘든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정을 내어 작업하는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짊어져야하는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 이며, 고통과 고난은 결국 그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흰점과 붉은 점은 불명확한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주권자와 전능자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방점의 역할을 감당한다

취재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춘천 성탄트리 문화축제를 꿈꾸며

글 김영명 기자 kym_5771@naver.com

성탄트리의 유래와 의미

성탄을 축하하는 상징물의 하나인 '트리'는 일반적으로 사시사철 푸른 잎의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푸른빛이 변하지 않는 영원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축제 행렬에서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을 사용하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빛나는 별 아래 상록수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아 전나무에 별 모양과 촛불 등으로 장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16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 말부터 금, 은종이 장식과 초나 전구 등을 장식하여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춘천의 성탄트리 점등행사와 연합예배

춘천의 성탄트리점등행사는 90년대 이전부터 춘천교역자연합회 주관으로 중앙로터리에 십자가 탑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1996년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창립된 이후에, 성탄기념 연합예배를 위해 중앙로터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형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점등식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춘천시의 재정지원으로 높이 12m, 반경 3.5m의 원추형 철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이의 확대 설치를 위하여 중앙로터리, 팔호 광장, 후평 사거리, 석사 사거리, 공지 천 사거리, 석사 하이마트 사거리 등을 대상으로 인접 교회가 연합하여 경비를 부담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춘천 전철 개통 후 새롭게 단장된 춘천역사와 미군부대 주둔지역인 캠프페이지 중심과 중앙로터리를 가로 지르는 도로 개설로 춘천역 광장에 지난해에 춘천시의 지원으로 추가 설치, 이 곳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춘천의 "성탄트리행사를 겨울문화축제"로

2007년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춘천크리스마스축제"를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여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 앞 (현 롤러스케이트장) 공간에 교회가 출품하는 '성탄트리 설치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시민들에게 감

동을 얻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 후 춘천문화방송국이 주최하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에 교회들이 참여할 기회도 있었으나, 주최 측에 의하면 교회의 참여가 미온적이어서 실망스러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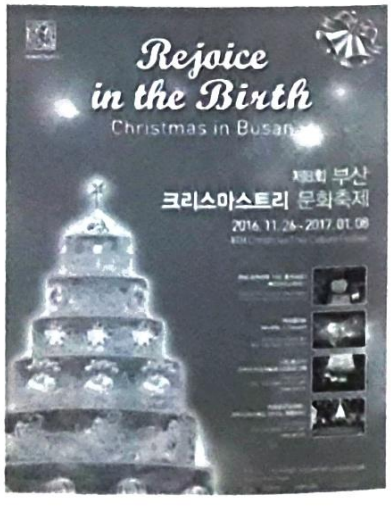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춘천의 성탄트리행사가 문화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몇 년 전부터 춘천시의 지원으로 춘천문화방송국이 주관하여 매년 5월~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춘천호수별빛축제"가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점차적으로 겨울철 볼거리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기독교절기 중 겨울 축제로 충분한 '성탄트리 문화축제'가 못내 아쉽기만 하다.

성시화운동 도시 중 부산광역시에서는 2009년도에 단순히 기독교 문화행사로 시작한 '성탄트리 점등행사'가 지금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광역시(중구 청)가 후원하고 "부산크리스마스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광복동 문화포럼"이라는 시민연대가 주관하는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매년 11월 말일부터 약 40여 일간 일정으로 중구 광복동 일대 1,160m 거리를 구간 내 요소요소 마다 다채로운 코너를 마련하여 시행하므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연간 7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하게 되었다.

불교문화권인 부산광역시가 이와 같이 기독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동기중 하나는 택함 받은 한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 믿으며,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 본부가 탄생하던 때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셨던 기관장들의 영향임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 부산광역시 기독교인합회가 성시화운동을 받아들여 기독교문화를 통한 지역복음화를 앞당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사례를, 성시화운동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춘천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 성시화"의 비전을 꽃피우는 사역에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 춘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여건이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춘천의 교회가 연합하면 가능한, 지금의 이 '성탄트리 점등행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춘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로 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방안의 일환으로 전 교회, 전 성도가 참여하는 '읍, 면, 동 단위' 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독교 연합조직 또는 성시화운동 조직으로 활성화 하면 이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성탄트리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고, 또한 이 조직이 읍, 면, 동 단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역내 시민을 섬기는 '예수사랑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어, 결국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성시화운동의 결정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해로 결혼 11년째인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뜨거운 여름날 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첫 아이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손용환 집사, 이지현 집사, 손새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지, 감사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

춘천으로 이사 와 교회에 등록했던 3년 전 봄, 시험관 시술을 마지막으로 받고 한 번의 자연 임신과 유산을 경험한 후로 다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아기가 생기질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이 예민해져갔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의 모습에 다시 시술을 해보자고 권했지만, 저는 자연임신을 소망하며 병원에 가기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이전과는 다르게 시술을 적극 권했고, 마침 그동안 다니던 난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친구에게 소개받아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이사야 12:2)"

또다시 시간에 맞춰 주사를 맞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고, 자연 임신에 대한 기대가 남아서 선뜻 병원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또다시 들어 큰 두려움 없이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목장의 집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병원에 가기로 결심한 때부터 담대한 마음이 들고 이전보다 마음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특히,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기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양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술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조용히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받지 않았던 처방과 시술 과정들을 권할 때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시술 과정을 거쳤던 이전과는 달리, 임신 확률을 더 높인다는 한 달 여 기간 동안의 장기 요법을 선택했고, 그 긴 시간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늘 놓아주던 배 주사를 바쁜 남편 대신 스스로 놓으면서 매순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수가 찬 몸으로 일곱 여덟 번을 혼자 병원을 오가야 할 때도 이전처럼 혼자 훌쩍거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오랜 기도제목을 함께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힘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매번 초조함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실패한 결과를 들었을 때의 낙심이 말할 수 없이 컸는데, 이번엔 아침부터 마음이 어찌나 평안했는지 낮잠을 실컷 자는 중에 전화를 받았고 임신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여부를 알기 위해 피검사를 받기 며칠 전, 교회 사모님, 목장의 든든한 목녀 유경희 집사님, 기도로 딸 셋을 양육하는 한나 자매님이 집으로 오셔서 결과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덕분에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교회 식구들에게 뱃속 아기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서른 여덟 나이에 어렵게 시험관 시술부터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지,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올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 임신 12주에 그만 신종플루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입덧과 약으로 인한 구토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됐지만, 이렇게 힘들게 가진 아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설연휴 동안 1인실에서의 시간이 오히려 쉼과 묵상의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후임자를 구할 한 달 여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 계약 조건 상관없이 이해를 얻어 쉴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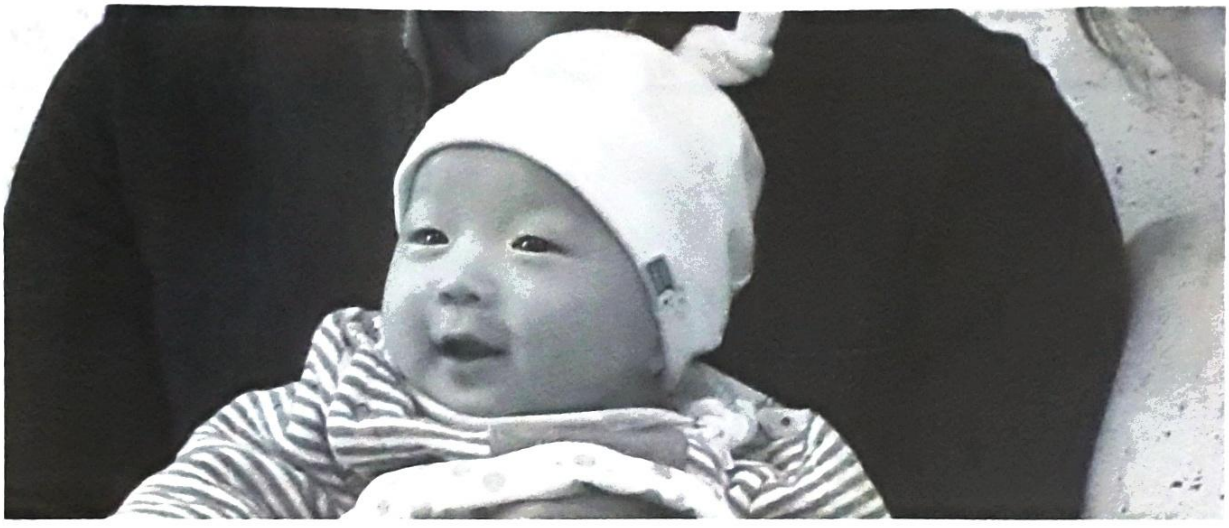
하지만, 임신 5개월에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영양과 호흡 등을 담당하는 태반이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조산 위험이 크니, 걷기 운동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의 누워만 지냈는데, 또다시 가벼운 산책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 끝에 드는 생각은 늘, 기도 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욱 조심하며 지냈지만 결국 7개월에 심한 복통을 느껴 조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태반이 더 내려와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부득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퇴원 2주 후, 결국 출혈이 생겨 대학병원 고위험산모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남편 밖에, 그것도 하루 두 번의 면회만 허락되었고, 24시간 태동기를 배에 고정시키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응급 산모들의 급박한 상황을 소리로 고스란히 들으면서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든 조심해서 뱃속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

시술 때부터 복수가 차고 잘 움직이지 못하느라 크게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가끔은 우울한 생각이 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감사함을 잠시 잊은 저에게 돌아오는 건 꾸지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혹여 조산으로 인해 적은 몸무게로 태어날 지도 모르는 아기를 위해 먹고 또 먹었습니다. 36주는 지나야 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기가 건강하게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장 집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고, 목녀 유경희 집사님께서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저와 아기를 위해 베풀어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늘 기도로 격려해주시는 사모님께서 사암리 교회 이전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매일 저녁 집으로 오시거나 전화로 빠지지 않고 기도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태반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실 때마다 더욱 커지는 아기의 태동에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비신자인 친정 어머니께서 제 고향의 모교에 다니시는 지인분과 얼떨결에 새신자 초청잔치에 가겠노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교회를 가셔서 저희 뱃속 아기를 위해 드린 기도 덕분에, 더 이상 올라갈 순 없다던 태반이 좀 더 안전한 위치로 올라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아이가 친정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더 이상 조산이 아닌 정확히 37주를 채운 날 저녁 남편이 수요예배에 가고 홀로 있던 시간에 출혈이 생겼고 급하게 연락이 닿은 남편과 사모님이 함께 동행하여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한 시간은 마침 목사님과 성도분들께서 저와 아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해놓은 수술 날짜보다 일주일 빠른 분만 준비였지만, 37주 만삭 기간에 들어서서 아기를 분만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컸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혈이 많아 수혈도 받고 회복실에서 다른 산모들보다 가장 늦게 퇴실할 만큼 힘들게 출산을 했지만, 아기를 안전하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의 매순간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새힘'이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시련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도록 새힘이를 통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 새힘이는 뱃속에 있을 때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심장의 미세한 구멍이 발견되었고, 폐동맥이 좁은 폐동맥분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2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새힘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더욱 강건케 됨을 믿습니다.

밤마다 교회에서 홀로 저와 뱃속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잠들기 전 함께 기도해주며 연약한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했던 남편이 있었기에 새힘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새힘이가 다른 이들에게 새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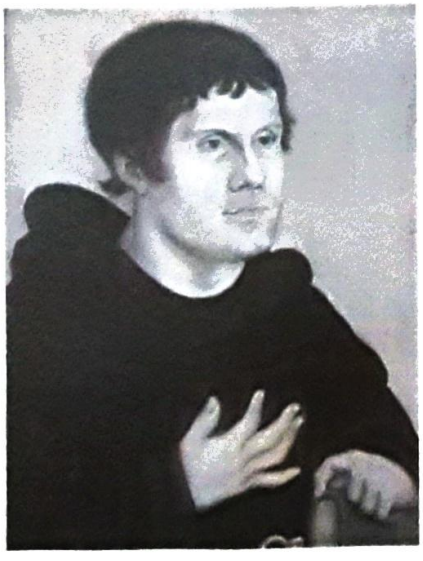
사암리 새 성전에서 오랜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신 목사님, 사모님, 목장 식구들,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새힘이를 첫아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지현 집사 (사암교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길을 따라 - 일곱번째 이야기

바르트부르크 성 피신한 루터

글 김현배 목사 (베를린 비전교회)



▲ 마르틴 루터

루터에 대한 납치극

루터에 대한 제국 추방령이 담긴 황제의 칙령이 보름스에서 내려졌다.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일 사회의 이단자로 찍혀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루터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그 누구도 루터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때 황제가 루터에게 발행해 준 안전 통행증의 시효 기간은 단 3주간이다. 이후에 루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매우 긴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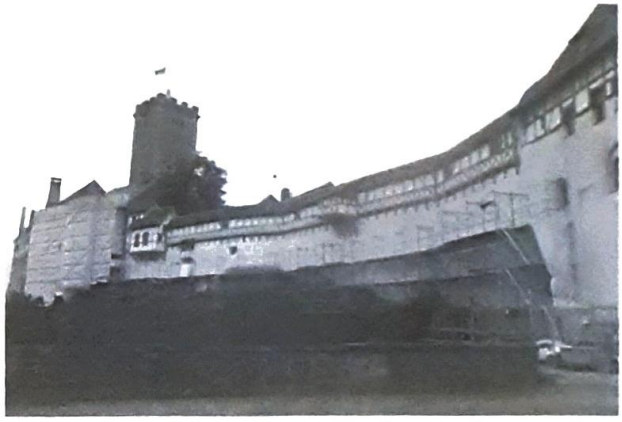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에서 최종 심문 후 8일째 되던 날 4월 26일, 루터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보름스 제국회의장을 떠났다. 그의 친구 슈르프(Schurf)와 그 도시에 입성할 때 함께한 몇몇 일행과 더불어 비텐베르크로 향했다. 이제 독일에서 숨을만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당시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선제후(Elector) 프리드리히가 있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개혁자인 루터를 희생시킬 마음은 없었다. 그러므로 루터를 대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신임하는 부하들을 시켜 납치극을 벌였다.

5월 4일, 함께 한 일행들과 루터는 마차를 타고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아이제나흐(Eisenach)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복면을 쓴 무장한 남자들이 숲 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루터의 마차를 에워쌌다. 마차에서 루터를 끌어내린 괴한들은 루터의 눈을 가리고 말에 태워 숲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괴한들은 루터를 납치하여 한 밤중이 되어서야 산 정상에 세워진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에서 내려 주었다. 높은 산의 차가운 밤공기를 흠뻑 들이켰던 루터는 성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런데 곧 이상한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다.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가던 도중에 괴한에 납치되어 행방불명 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루터를 나무에 매달아 화형 시켰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루터가 비밀리에 살해되어 죽었다는 소문도 나왔다. 아무도 루터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해져 갔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둔생활

1521년 5월 4일, 루터는 우뚝 선 절벽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성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 생활이 시작됐다. 그는 머리와 얼굴에 턱수염을 기르면서 기사로 변장했고 그의 이름은 에르그 융커(Jarg Junker)로 바꾸었다. 그 성의 최고 책임자였던 한스 폰 베어렙쉬



▲ 마르틴 루터가 피신했던 바르트부르크 성

라는 사람만이 루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고대의 마을 요새인 이 성에서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루터는 이러한 운둔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 슈팔라틴, 멜란히톤에게 편지할 때 주소와 날짜 대신에 발신지를 "높은 성에 둘린 나의 밧모섬(계 1:9)에서, 광야로부터, 새들의 나라에서, 하늘이 열려있는 땅에서."라고 표기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생활은 루터에게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한 루터는 세상과 단절된 삶이 고독했고 우울했다. 가끔 무겁고 어두운 생각이 엄습하기도 했고 잠들지 못한 밤도 있었다. 그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가방에 라틴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 헬라어 성경은 보름

스에서 슈팔라틴이 보내주어 받았다. 또한 루터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여겨 즐겼고, 산책과 토론, 신학적 사색, 연구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면죄부와 미사 교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으며, 시간 나는 대로 편지와 소책자를 썼다. 그리고 루터는 시편 주석을 꾸준히 저술했고, 마리아 수태고지에 관한 책을 완성했으며, 그 외 기독교인의 삶을 갱신할 목적으로 여러 권의 책들을 완성해갔다.

그의 강제적인 칩거 생활은 1521년 5월 4일 부터 1522년 3월 1일 까지 약 10개월이었다. 이 기간은 루터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독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개혁에 힘을 증대시켜 주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확신 있게 다가왔다.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

10개월 간의 비텐베르크 성에서 루터가 저술한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업적은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이었다. 그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3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했다. 3월 1일,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을 떠나는 날, 신약 성경 번역은 완성되었다. 그 후 비텐베르크에서 자신의 친한 친구요 탁월한 헬라어 학자인 멜란히톤의 도움을 받았다. 드디어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자를 통해 1522년 9월 21일에 "독일어 신약성경"을 출판되어 배포되었다. 이 성경은 "9월 성경(September Bible)" 또는 "루터의 성경(Luther Bibel)"으로 불린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한 것이다. 당시 일반인이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였다. 겨우 미사 때에 사제들에 의해 읽혀지는 몇몇 구절들만을 들 수 있을 뿐이었으며,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평신도들도 말씀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자국어인 독일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분명하고 귀중한 책이 되었다.

인쇄업자들은 루터의 신약 성경을 마구잡이로 찍어 보급했다. 많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구하여 열정적으로 공부했으며, 어떤 사람은 가슴에 품고 다녔다. 이제 교황의 허가나 간섭 없이 누구나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짙은 어두움에 휩싸여있던 기독교 세계 전체가 확 달라지게 된 것이다. 말씀 뿐 아니라 사람의 말들까지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성직자 계급 엘리트의 특권이 사라졌다. 그가 교황의 교서와 교회법 문서들을 불태운 것만큼이나 혁명적

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의 결과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흠정역 성경이 영국에 미친 것과 버금갈 정도로 독일어와 독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종교개혁에 강력한 도움을 주었다. 루터의 역본은 독일의 최초의 고전이다. 문학 작품이 되었다. 이 성경은 독일 기독교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사와 언어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터 생애 최대의 업적 중의 하나는 신약성경 번역이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대학교 시절에 자신을 "성경 박사"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며,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하였고,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루터는 원문과 자국어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였다. 루터는 성경 번역자로서 탁월했다. 그는 위대한 성경번역자였다.



▲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

마귀와 싸운 경험담

"루터가 마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

루터에게서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본래부터 루터의 삶의 일부였다. 사실 루터는 마귀와 여러 번 직접 대면했다. 마귀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만큼 분명했기 때문이다. 루터의 신앙 체험과 신학에 마귀는 늘 부각되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강력한 어두움의 영들과의 종교개혁적인 투쟁 속에 자신이 던져져 있다고 보았다. 신학적이든, 교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저항을 마귀의 역사라고 보았다.

특히 중세의 미신들 속에서 자랐던 루터는 그 외에도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 악한 생각, 대적 자들의 무서운 협박들로 인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다. 또한 루터는 육체의 병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마귀의 작당을 정기적으로 경험했다.

특별히 비텐베르크 성에서의 은둔생활 중에 있는 루터는 밤중에 종종 사탄이 나타난 것을 목격했다. 그는 악마가 검은 개와 검은 박쥐와 올빼미의 형상으로 나타난 적도 있었고, 악마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다. 루터는 사탄을 향해 아주 저속한 말

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날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 루터는 마귀가 나타났다고 해서 잉크병을 던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현재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루터의 방(Lutherstube)에 가 보면 벽이 일부 파였는데, 그곳이 잉크 자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한다. 물론 나중에 생긴 전설이라고 한다. 어떤 학자는 잉크 얼룩 이야기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루터가 신약성경을 번역한 것이 마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루터는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마귀와 벌이는 전투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찬송을 지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 가사에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 할 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또 3절 가사를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세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는 "만일 내가 나의 경험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 그것들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루터는 악마의 유혹에 기도로 맞서 싸웠다. 지금도 마귀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며, 특히 기도를 매우 싫어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 비텐베르크 성에서 내려다 본 마을

비텐베르크에서의 종교개혁 -"칼슈타트와 루터의 견해 차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없는 동안 루터는 멜란히톤이 개혁운동을 주도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의 소심함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Carlstadt)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장하였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개혁을 이끌기 시작했다. 칼슈타트 교수는 사람들과 함께 급진적 종교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설교와 집필을 통해서 미사와 성체 숭배, 독신제도와 수사의 독신 서약, 수도원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교회에서 모든 형상들을 제거하였으며, 고해성사를 반대하며 성찬식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기 미사 드릴 때 사제들이 입는 복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미사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제가 떡을 회중의 입에 넣어주는 대신 회중 각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떡과 잔을 받도록 했다. 칼슈타트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비텐베르크 교구 교회에 있는 성인들의 화상이나 성상, 제단, 그림, 깃발 등의 제거를 결의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로 여긴 그들은 철거하기 시작했다.

칼슈타트는 예배에서 외면적인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칭의론과 복음의 영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율법주의를 소개했다. 루터를 따를 것인가? 칼 슈타트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작은 읍 비텐베르크는 많은 혼란을 빚었다. 평신도 신분인 비텐베르크 선제후는 신학적, 교회적 문제들이기에 개입을 꺼려했다.

비텐베르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루터는 1522년 3월 6일,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비텐베르크에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곧바로 그 다음 주일,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물론 칼슈타트가 이미 언급했던 성체 숭배, 수도원 제도, 성인과 성물 숭배, 미사제도, 그 밖의 여러 미신적 의식들의 반대와 변화에 대해서는 루터도 수긍을 하지만, 칼슈타트의 급진적 개혁에는 반대했다. 루터는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강경했지만 대적들에 대한 아량은 많았다. 불친절한 단어는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았으며, 태도는 유순했다. 지금까지 루터는 설교와 글을 써서 교황들에 맞서 싸웠으나 폭력이나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권하고 선포하는 일만 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칼슈타트와 몇몇 극단적인 개혁가들은 비텐베르크를 떠났다.

비텐베르크로 귀향한 루터는 설교사역을 통해 교회 개혁에 집중했다. 그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행방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복음의 중심성을 강조했다. 루터의 설교를 듣고 많은 주민들이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질서를 회복했으며, 1523년부터 1526년까지 점진적으로 교회의 예배와 예배의식의 개혁을 문서화하였다. 루터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설교자였다.



▲ 비텐베르크 성교회



▲ 워싱턴 백악관 외부에서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미 · 동부지역 아이비리그 해외찬양선교공연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 10월 17~25일 7박 9일간, 뉴욕. 보스톤. 워싱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은 1997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합니다. 1995년에 개국한 춘천CBS는 이젠 원주, 홍천, 횡성, 화천, 철원등 강원CBS로 그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우리 합창단 또한 동반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젠 강원도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써 올 한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통한 복음사역이야 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주님을 증거하는 멋진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주신 선교지는 다름 아닌 미국... 정말 엄청난 나라이기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는 아니였기에 묻고 묻고 또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강연술단장님의 말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정말 저희 아이들이 가야할 선교지가 맞나여? 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잔잔한 마음의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곳은 선교지가 맞다. 그 땅을 밟고 걸으라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 받으며 회복될 것임을 또한 다음세대를 이어 나아갈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허락하심도...

드디어 5월 8일 미 · 동부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 기도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적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0월 17~25일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 · 동부지역 아이비리그 해외선교공연을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67명의 단원 및 부모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합창단의 담임목사님이셨던 고 김길홍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번 선교는 단원 및 부모님들까지 금식기도로 무장하길 권유하셨기에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 1인1식 120번의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루었습니다. 말씀과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문으로 단원 및 부모님들의 릴레이 금식기도가 시작되어, 매주 토요일에 단원들은 합창연습을, 부모님들은 8번의 중보기도모임으로 돈독히 다져갔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전 40일 금식기도를 통해 영적전쟁에 승리하셨듯이 우리 합창단도 잘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 = 기도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만큼 기도의 단을 많이 쌓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번 선교는 합창외에 난타과 워십등 다채롭게 준비하게하심을 보면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소화해 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페더럴 홀 미국의회 구 의사당에서의 첫 거리공연, 단원들은 처음엔 합창으로 도전하려고 했으나 다들 많은 인파속에 부끄럽다고 나서지 못 할때 곧이어 언니, 오빠들의 워십팀이 나와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뼛대던 아이들도 점점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신감 갖고 더 열심히 기쁨의 찬양과 워십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지없이 합창을 했고 워십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를 지나 자유의 여신상까지, 워싱턴의 타



▲ 워싱턴 새소망교회 워십

임스퀘어를 거닐며 그 땅을 밟으리라는 말씀 따라 투어버스가 아닌 모든 일정의 이동수단은 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은 지금도 생각만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잘 따라와 주고 힘들었을텐데도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환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 준 모습에 큰 감격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현재 저희 합창 단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 선교에 함께한 단원 및 부모님들이 모두 67명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초청받은 3곳의 교회는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저녁예배의 뉴욕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목사님) 에서의 첫 공연은 정말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재두.류경자선교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왔다고 뉴욕의 강목회(강원도출신목사님모임) 회원 목사님들까지 와주시고 선교후원금까지 주셔서 일정에 없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견학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저녁예배 워싱턴 새소망교회에서는 이번 선교일정의 반을 소화한 때인 만큼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있을 무렵 너무도 감사하게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와 은혜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귀한자리, 귀한시간 이였습니다. 안인권 담임목사님께서 부흥집회로 출타중아라 안지웅 목사님, 안지영 목사님께서 반갑게 환영해주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 준비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안지영 목사님, 생명있는 열정의 말씀으로 방전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 안지웅 목사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엔 우리 합창단원들까지 강단 앞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로 간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연인 주일 뉴욕의 프라미스교회(담임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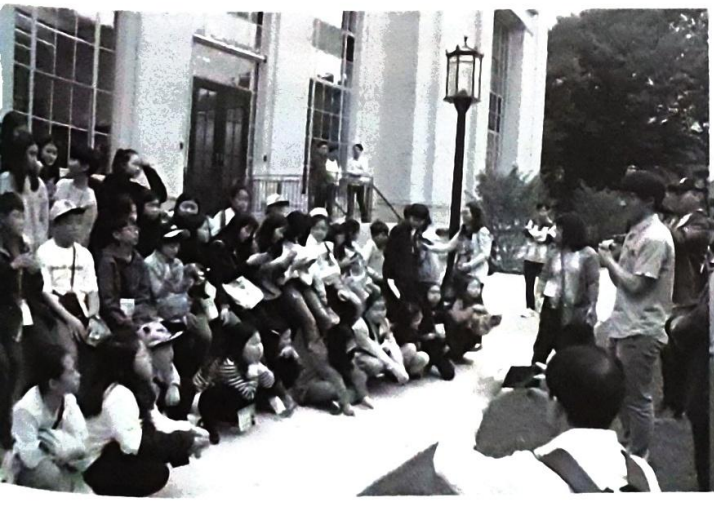
남수목사님)는 4/14 window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운동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멋진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에 난타와 합창으로 특별공연을 했습니다. 12년전 미국 기독 뮤지컬 'The Promise'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김남수 목사님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의 한국과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회복되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주춤거리고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뮤지컬을 초연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준비된 3곳의 대학 (하버드, 예일, MIT)외에 브라운대와 컬럼비아대학까지 5개 대학을 견학하고 MIT교수님의 강의와 재학생들의 각 대학의 숨은 이야기등 접하지 못했던 경험담의 실제 상황들을 들으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55:8-9)

이 말씀이 아마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그저 준비된 자로써의 자격을 갖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찬양선교란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다음세대인 이 아이들이 이어갈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현영 집사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장, 온누리교회)



▲ MIT 공대 윤요섭 교수 강의



▲ 워싱턴 볼티모어 이너하버 항구에서 합창

영 메시아

The Young Messiah

다시 성탄절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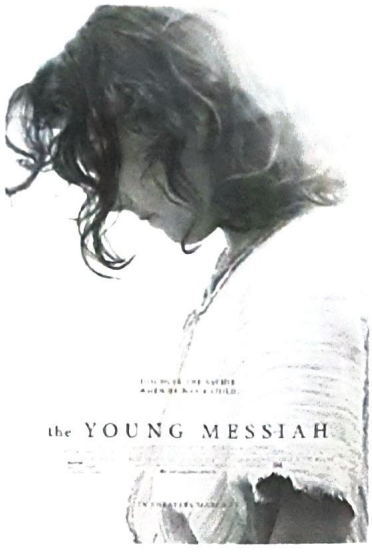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후 헤롯의 잔인한 손아귀를 피해 애급으로 피신한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7년 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한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의 사흘을 다룬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7살이 되어 나사렛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정체성 identity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이 역시 '다윗과 밧세바' 의 작가 경우처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더욱 감동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필자에게 영화를 통한 그분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한 번 기이한 과정으로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이 영화의 번역자막이 정말 극적으로 '발견' 되어 가능해진 것이다!

앤 라이스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이 영화는 우선 그 소설이 주는 감동을 먼저 맛보고 관람하는 것이 좋겠다. 즉 이 소설에 대해 언급한 글을 소개하자면,

"...예수는 누구와,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언제 자신이 신의 아들이며 메시아(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까? 남에게 없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의 가족들은 그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리스도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읽다가 한 번쯤은 떠올렸을 법한 물음들이지만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신학보다는 문학의 일일 것이다. 성경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예수님에 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의 30년 중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행적은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 정도다. 앤 라이스는 이처럼 베일







에 싸인 30년 중 1년의 시간을 뽑아내어 '영 메시아'에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작가는 헤롯의 영아 살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한 요셉 일가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출생의 비밀, 자신 안에 깃든 불가사의한 능력을 마주한 어린 메시아의 충격과 의문을 섬세하고도 대담하게 그려낸다.

알렉산드리아 목수 거리의 활기, 왕의 광기와 반란의 연기, 회당의 문답식 수업, 예루살렘 성전을 감도는 매캐한 냄새, 순례자의 기쁨과 좌절… 치밀한 조사 끝에 그려낸 1세기 팔레스타인의 풍경과 유대인 예수의 삶이 정교한 태피스트리처럼 펼쳐진다."

이러한 영화 같은 소개를 보는 바와 같이 스크린에서도 그 캐릭터를 십분 잘 살리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연출과 미장센이 돋보이는 필름으로 되살려냈다.

작가 앤라이스는 원래 뱀파이어 등 흡혈귀와 마녀의 세계를 다루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한 글을 쓰겠다고 선언하였다 한다. 작가에 대한 이러한 특수성으로 작가의 신심을 의심하며 오해하는 네티즌도 있는데 이점 유의할 일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손길도 느끼면서 더욱 숨겨진 믿음의 비밀도 맛보는 영감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 예수를 연기한 아담 그리브스 닐이라는 아역배우의 인상이 굉장히 신성하고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나와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 헤롯의 명으로 어린 예수를 추적하는 로마 백부장 세베루스 역에 명배우 숀빈이 연기하고 있다.

이번 성탄절 따뜻한 은혜의 감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로 권하고 싶다.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암 예방과 컬러푸드 (Color Food)

글 정형만 원장 (참사랑내과)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에서 1~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서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암 예방과 컬러푸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컬러푸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자연식품을 뜻한다. 과일과 채소 등에 함유된 천연색소가 몸 속 나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컬러푸드에는 **파이토뉴트리언트** (Phyto-Nutrient) 또는 **파이토케미컬** (Phyto-Cemical)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다.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이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산화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생리활성물질을 말한다. 이것은 채소, 과일의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등 식물 고유의 컬러 속에 함유되어 있으며 약 2500 가지에 이른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제7대 영양소' 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암협회는 컬러푸드의 항암효과에 주목해 하루에 5가지 이상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Five a day'

라는 공식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암 예방 컬러푸드는 라이코펜이나 플라보노이드 등 암이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컬(천연 생체 활성화합물질)이 든 빨강 · 흰색 · 노랑 · 초록 · 보라 다섯 가지 색깔의 과일이나 채소를 말한다.

암 예방 컬러푸드 중 **빨간색** 식품에는 토마토나 고추, 딸기, 팥, 수박, 사과, 파프리카가 있다. 이 식품들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항암 효과는 물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관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낸다.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암과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 또한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이 중 토마토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 중 1위에 꼽히기도 했다.

흰색 컬러푸드인 마늘과 파, 양파, 버섯, 배, 감자, 무, 양배추, 도라지, 인삼, 굴, 백포도주 등의 흰색계통의 식품은 알릴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다. 알릴화합물은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을 예방하고 강한 살균 · 항균 작용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능이 있다. 흰색을 내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 외에 몸속에 쌓인 유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세균 ·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노란색 컬러푸드인 오렌지, 귤, 호박, 당근, 고구마, 감 등은 카로티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와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렌지, 자몽, 감귤 등의 안쪽의 흰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은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노란색 곡류와 과일에 해당하는 대두, 옥수수, 멜론 등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유방암 예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란색 식품에는 또한 비타민A · B · C와 칼륨이 풍부해 배설과 이뇨 작용이 촉진된다.

초록색 컬러푸드인 배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해초류, 대두 등에는 설포라판, 인돌, 리그난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한 세포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 대장암이나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춰 준다. 초록색 식품(배추 · 브로콜리 등)에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피로를 풀고 세포 재생을 돕는 엽록소가 풍부하다.

붉은 보라색 계통의 채소 · 과일은 항산화 효과와 염증반응 · 암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페놀화합물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식품으로는 자두와 딸기, 적포도, 적포도주, 키위, 건포도 등이 있다. 보라색 식품에 속하는 자두나 적포도는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정색 식품(포도)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다 이 안토시아닌은 검은 포도에 많이 들어있고 흰 포도나 엷은 청포도에는 적게 들어 있다. 검은 포도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 계통의 물질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W.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WOLFGANG A. MOZART, 1756-1791 : AVE VERUM CORPUS,K.618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2016년의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이 이제 또 다시 과거로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건널목에 섰습니다. 어수선한 한 해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아픔과 즐거움, 회한과 결연한 의지가 서로 교차되는 세모의 계절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짧은 생애의 깊은 감상과 고상한 아름다움, 그리고 고독의 한가운데서 생을 마감한 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가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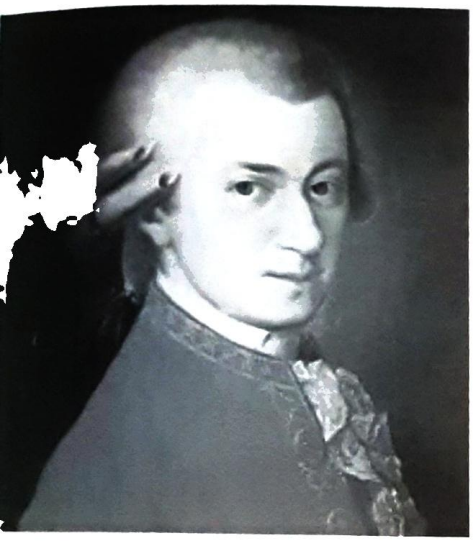
아무리 클래식 음악이야기의 형평성을 따지며 소개를 자제하려고 해도 모차르트의 위대함과 천재성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유분방한 그의 유년의 치기 어린 작품들이 그 당시 교회음악을 향해 조소를 머금었어도, 그가 갑자기 천재적 삶을 마감하기 육 개월 전에 작곡했던 이 모테트만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린 성가곡은 드물 것입니다.

"…찬양하라, 진실하신 그분의 몸(성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AVE, VERUM CORPUS / NATUM DE MARIA VIRGINE…)

이 곡에 대하여 슈리히는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종교적 영감이 가득한 곡으로 그가 지상의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그 어떠한 불안과 초조도 그 청아한 선율의 정신을 결코 억누를 수 없었으며, 이 곡을 듣노라면 온 누리에 황금 빛 저녁 노을의 거리를 거닐 듯 평화가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대적들은 온갖 상술이나 헛된 이야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쁘고 복된 성탄의 소식은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몸과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에 오르셨고 또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AVE, VERUM CORPUS, NATUM DE MARIA VIRGINE, VERE PASSUM IMMOLATUM , IN CRUCE PRO HOMINE / CUJUS LATUS PERFORATUM, UNDA FLUXIT ET SANGUINE, / ESTO NOBIS PRAEGUSTATUM , IN MORTIS EXAMINE //

찬양하라, 거룩하신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사, 진정한 희생을 하셨네 /

그분의 옆구리의 찔린 상처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네 /

우리들이 죽을 때에 그분의 고난 기억하게 하소서 〉

언제나 가벼운 복음송가나 CCM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무거운 칸타타나 〈메시아〉같은 성탄의 계절에 듣는 교회 음악이 부담이 된다면, 이 곡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다양한 음반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선생님이나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나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성가대나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랑스런 우리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친 것을 축하하고, 함께 고생하신 어머님들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다 더 높은 자신의 비전들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그리고 더욱 더 멋진 인생을 준비해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른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 세번 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DANI

글 김금찬 선교사 (JDM)

미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15절-22절

고든 맥도날드의 책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청년은 간디에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간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때때로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낮아지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성도가 큰 종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성결한 사람이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주는 미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직하다', '미덥다' 라는 뜻입니다. '미쁘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사업의 거래나 공적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신실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하엘한네에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신 7:9;사 49:7). 요즈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미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초심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미쁘신 분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이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행위의 공로를 누구에게로 돌리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보람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것은 미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파렴치한 놈!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자' 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판단할 때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겠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변덕이 죽 끓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에 붙들린 사람들 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를 믿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였으니 그 정도는 내가 해 낼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그 정도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끝까지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초심을 잃고 순수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헌신과 충성으로 일했지만 어느 틈엔가 교회의 어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리더들입니다. 고집스런 자신의 주장을 일삼는 겸손을 잃은 한국교회의 심각함을 발견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도 닮아 가야 합니다.

부패와 발효는 다릅니다. 썩는 것과 익는 것은 비슷한 현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익과 해악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것은 3일만 지나도 상하고 썩어서 먹을 수 없지만 어떤 것은 30년이 지나도 더 귀한 대접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닮는 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 오래 출석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삶을 볼 때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 집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 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익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키려면 성령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미쁘신 하나님의 보증이 됩니다. 증거입니다. 성령 받아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령충만을 유지하는 성결의 은혜야 말로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조심하며 성령충만하여 인생 끝까지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글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2017 국제성시화대회 개최 도시 선정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13서울국제성시화대회 당시 전략회의를 통해 국제대회를 매 2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5년 캐나다(토론토)국제성시화대회를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준비하던 중에 캐나다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로 인해 부득불 유럽성시화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2015베를린국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국제성시화대회 장소는 국내 도시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시도 지역도시의 희망을 접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불기피할 경우에는 해외 도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에 강원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를 추대했다. 양명환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하여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교회가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내외 부흥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는 오는 12월 5일(월) 횡성감리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된다. 금번 양명환 목사의 한기부 대표회장 취임은 강원성시화운동에도 크게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쿨앤홀리 페스티벌 인 태백〉 홍보활동

2016년 5월 1일 창립, 5월 2일 평가회의로 모인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독교문화행사를 기획하고, 8월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한 "2016쿨앤홀리 페스티벌 인 태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태백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본부장(오대석 목사)와 서기(김옥기 집사)가 지난 10월10일과 11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협조, 서울 강남구 '대치순복음교회(담임 한 별 목사)'와 '동대문구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범선 목사, 용두동교회 담임)'를 방문하여, 2017년 8월1일부터 3일까지 태백에서 개최하는 "2017쿨앤홀리 페스티벌 인 태백"사역을 설명하고,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치순복음교회 한 별 목사는 "교회 차원에서 의료봉사, 미용봉사 팀을 포함해 봉사활동 팀과 찬양 팀을 포함해 전 교인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최범선 용두교회 목사도 "내년 목회계획에 참고하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 소식을 접한 제주특별자치도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홀리클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준철 목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최소 1,000여명이 태백으로 와서 태백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전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 기독영화 상영, 태백산 정상기도회, 검룡소 기도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성시화운동본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성시화운동 참여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취재 김영명장로 (춘천성시 편집위원, 순복음춘천교회)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 개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시점이기에 통일광장기도회의 적극적인 제안과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협조로 11월 18일(금) 저녁 8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강사이신 김한식 목사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화요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4시에 주향교회에서 화요통일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11월 22일(화)에는 구봉산 블레싱춘천 카페에서 20여분의 도고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하바로브스키에서 사역하시는 유OO선교사께서 함께 하여 소수민족 전도 및 실제적인 북한 심김과 선교등 사역을 소개하였고, 북한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정보를 나누어 주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 목사)가 11월 21일(월)에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거룩한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을 위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지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도고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해솔직업사관학교 사은회



해솔직업사관학교(김영우 이사장)에서는 11월 22일(화) 오후4시 베어스호텔에서 사은회를 열었다.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각 기관장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학교 운영을 소개하고, 공연과 애찬의 시간을 가졌다. (사)해솔직업사관학교는 북한이탈청년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돕는 기숙형 직업대안학교로 북한이탈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솔리데오 사모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솔리데오 사모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6일(토) 오후5시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지휘에는 박영식, 피아노 반주에는 박성경과 31명의 사모들이 "다시 오실 나의 주 예수"를 비롯한 은혜로운 찬양 16곡을 공연하였다. 솔리데오 사모합창단은 목회자 사모로서 찬양을 사모하는 분이면 연령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문의: 010-9947-9631)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제19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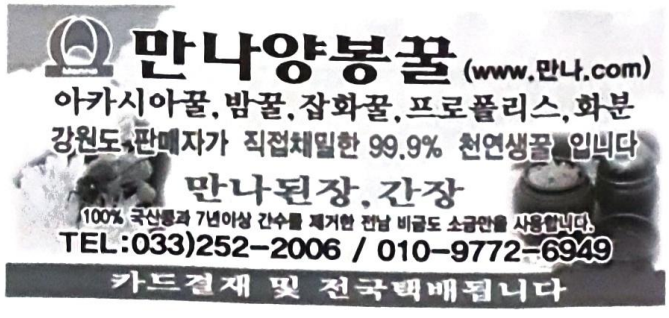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강연술 단장) 제19회 정기공연이 11월 26일(토) 오후6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박윤경 아나운서(강원CBS)의 사회로 지휘자 손유리애, 반주에는 경유림, 67명의 단원들이 공연을 펼쳤는데, 할렐루야 난타를 시작으로 Kyrie 곡외 20여 곡이 공연되었고, 춘천여성합창단, 아카펠라 리퍼퓨니, 순복음춘천교회 오케스트라가 찬조 출연했다.

사진/취재 이은정기자 graceyh02@hamail.net

강원CBS사옥건축 기공식



강원CBS사옥건축 기공식이 11월 30일(수) 오후2시에 서면 금산리(창작개발센터 옆)에서 1부예배 에서는 박상칠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 류영모(CBS재단이사장)의 말씀선포, 2부 기공식은 박윤경 아나운서(강원CBS)의 사회로 나이영 본부장(강원CBS)의 경과보고에 이어, 내빈 축사 및 첫삽뜨기가 진행되었다.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헌금으로 진행
주소: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사랑감리교회
문의: 010-2529-6193(단무장 이기영)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방문수업가능)
대상: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후평 2동 796-11번지
문의: 010-9333-8753(단장 유은경권사)
010-3180-5330(지도 김귀선권사)

헐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cafe.daum.net/ccjmm
문의: 010-8798-8782 (정학수)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문의: 011-361-1995

한마음 탁구회
일시: 매일아침 7시 30분
장소: 더즐거운탁구 (후평1단지 시장입구)
회비: 월 4만원
문의: 010-4306-3818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 모집
대상: 목회자 사모
자격: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문의: 010-9947-9631(회장)
010-6378-2261(지휘자)

춘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나눔교회
문의: 010-5521-3779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춘천드림성결교회 (동광길7)
회비: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문의: 010-3466-5835 (백승환목사)

교회음악(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장소: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후석로 150번길 17-1)
문의: 010-6375-8874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1-366-4972
033-255-2191(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춘천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문의: 033-263-5455(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김옥련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문의: 070-4383-4720
010-7567-5012

오순절기도원 집회 안내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문의: 033-243-5993/010-8263-0190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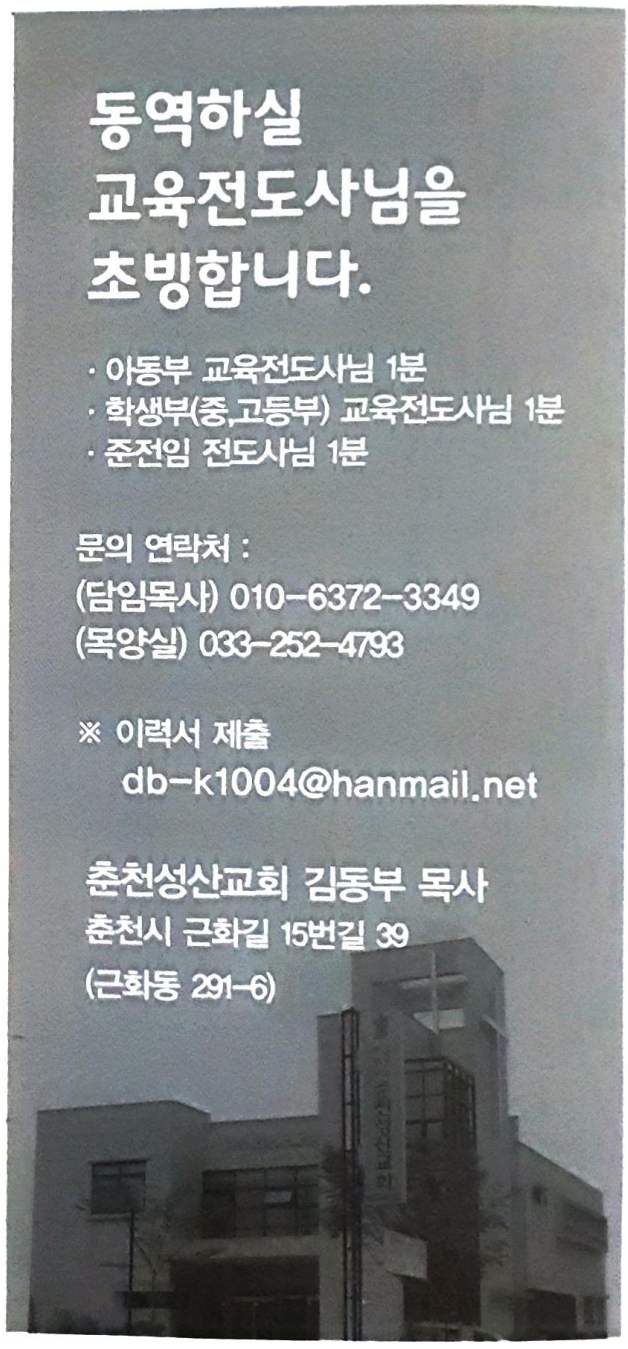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일시: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장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문의: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누리꿈터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도서관 안내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
(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일시: 월~금, 오후 5시30분~7시30분
장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대상: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기타: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문의: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전도협회

〈겨울3일클럽전도자훈련〉
일시: 2017년1월2일-6일(4박5일합숙훈련)
장소: 신성감리교회
회비: 12만원 (선등록시혜택이있습니다)
대상: 훈련받기를 희망하는 분 누구나
(주일학교교사.중고등생.청년.선교사.목사.사모등등)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holycc1972@hanmail.net

춘천콜밴 010-8363-6925 지용근
공항예약 · 소형이사 · 행사준비 · 기업물류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요섭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주영 이주희 이태우 임덕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JDM 건사연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성시무용단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이디야남춘천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4/14 윈도우 V·성탄절 파티전도 포럼

2016년 12월 9일(금) 오전 11시 · 주향교회

※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책자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설명서와 어린이 앱도 나눠드립니다.

쥬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강사 김준목사(푸른나무)
서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이중인목사(필라델비아 온누리교회)
백주석목사(광주포도원교회)

춘천모임 5주년기념

12시간 기도회

2016. 12. 12 월요일 오전10시-저녁10시

주향교회 본당

주최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협력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 매월 첫주 발행 · 211호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구독문의 033 254-1700